



‘의견문화제’ 내달 13일 개막

‘애견과 함께하는 판’ 주제 15일까지 임실 오수 의견공원 일원

‘제32회 의견문화제’가 내달 13일(금) 전야제를 시작으로 15일(일)까지 3일간 오수 의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애견과 함께하는 판’이란 주제로 열리는 금년 의견문화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애견들의 축제라는 이미지 구축에 적극 나서게 되며, 축제가 5월 가정의 달에 열리는 것도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이다.

특히, 전국 애견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재미나는 ‘판’을 열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의견문화제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오수를 애견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32회 의견문화제는 애견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한층 더 알차게 구성됐으며, 주요 행사일정으로는 5월 13일 지사면 영천리 개개면 생가에서 농악의 타올림과 잔치 한마당을 시작

으로 전야제의 막을 올리고, 14일(토)에는 한국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 반려견 콘서트, 개나무골 오수 동네한바퀴 퍼레이드행사, 너랑나랑 운동회, 동물생심 보물찾기 등의 특색 있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개나무골 동네한바퀴’ 애견퍼레이드 행사에는 제35사단 군악대, 전북경찰청 기마대, 관내 초중고생, 풍물공연단과 함께 애견동호인들이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15일(일)에는 한국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와 전국 반려견 콘서트 등 전날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하는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될과 동시에 민속 씨름대회 등 전통문화놀이를 하며, 축제 당일인 인디페스티벌 밴드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행사장 이면에서는 참치나서 먹거리촌과 향토 음식 아시안, 반려견

과 함께하는 추억남기기, 동물생심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며, 나만의 개 꾸미기와 애견 무료검진, 애견 무료미용, 애견 핸드프린팅, 비눗방울 체험, 애견 캐리커처, 뱃팍타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전시행사는 임실군 특산물인 치즈, 고추 등의 전시판매와 관광홍보관, 각종 애견관련 사진전 등이 있다.

참여행사는 반려견 콘서트 등 의견문화제의 여러 행사에서 심사자격을 가질 수 있는 애견선정단과 애견 힐링캠프를 준비 중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애견 힐링캠프는 행사장 주변에 캠핑장지를 조성해 캠핑아이와 이벤트를 하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축제프로그램 및 일정은 홈페이지(sudogfestival.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군 위상 드높이자” 필승 다짐

박우정 군수,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장 방문 격려

박우정 고창군수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군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6 전라북도민체전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28일 오후 체육회 임원들과 더불어 고창군의 자존심을 걸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의 훈련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박 군수는 고창군 대표 선수단이 훈련하고 있는 배구,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궁도, 에어로빅 등 각종 종목 훈련장을 순회하며 격려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우정 군수는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이 많은 군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고창군이 5위의 성적을 거두어 고창군의 위상을 높였 듯 올해 대회에서도 단 한명의 부상자도 없이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현장 고창군에서 전지훈련 중인 탑슬레이·스캘레톤 국가대표선수단 30여명과 격려 만찬을 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는 전지훈련장소로 고창에 자주 찾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로컬라이프



고창군, 월곡공원 놀이시설 확충

고창군이 어린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업비 400만원을 들여 고창읍 월곡지구 일대에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월곡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률이 높으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군은 기존의 조합놀이대를 교체하고 시소와 흔들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에 앞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 33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자에게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요령에 대해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놀이터 안전 점검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초 3년 대상 ‘우체국 체험 행사’

임실우체국은 28일 임실초등학교 3학년 64명을 대상으로 ‘우체국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와 초등학교 사회학원의 공공기관 견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우체국이 하는 일을 학생들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평소 많이 접해 볼 수 없었던 우체국 창구와 집배실을

방문하여 실제로 우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고, 수시로 질의와 문답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이 우체국이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을 인솔한 신승후 교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대강면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시범운행

5월 2일부터 오전 8시~오후 7시 예약 통해 마을회관~면소재지 운행

남원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대강면 지역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시범운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해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운영체계다.

이번에 개통되는 대강면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버스와 달리 주민의 운행요청에 따라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월탄리, 방동리, 생암리, 신덕리, 방산



리 등을 운행하게 된다. 특히 방동리 저동마을은 그동안 노선 버스가 운행하지 못한 지역이었

나 이번 마을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강면 마을버스는 예약(물전화 063-631-3120)을 통해서 마을회관에서 대강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500원이며 예약 순으로 운행하므로 사전예약이 꼭 필요하다.

시내 출퇴근자와 통학 학생의 편의를 위해 방산리 방면 첫차, 막차와 월탄 방면 시내버스는 종전과 같이 운행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사업 34억 투입

남원시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 34억원을 들여 자활근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기움통장사업,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기능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탈수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과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시장인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대상자들이 읍·면·동 및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정비, 복지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시장인형 사업은 자활센터 외 3개 기관에서 음식물재활용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은 3년 후 창업을 지원받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임실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임실군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

군은 지하수 개발 이후 여러 원인으로 사용이 중지돼 방치된 관내 관정을 발굴하기 위해 방치공 전담반 및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에 나선다.

또한, 방치 은닉된 지하수공은 읍·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원상복구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공을 찾아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깨끗하고 맑은 수자원을 관리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